

# 쌀 푸딩·쌀 또띠아...쌀의 변신 '미라클'

<쌀미>

쌀 소비 촉진 위해 전남서 열린 '전국 쌀 요리경연대회' 가보니

광주·여수·대전·파주 등에서 예선 거친 10팀 뜨거운 경쟁  
여수 '미작연구소' 대상...도 "레시피 발굴해 공유 힘쓸 것"

해가 갈수록 더 외면받는 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쌀 요리를 만들어 국민들의 '입맛'을 돌올 수 있을까.

'전국 쌀 생산량 부동의 1위' 전남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레시피 대결'이 펼쳐졌다.

전남도와 전남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순천시 덕월동 순천제일대학교 성심관 1층 조리실에서 '제3회 전국 쌀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발굴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국 1인당 쌀 연간 소비량은 2020년 57.7kg, 2021년 56.9kg, 2022년 56.7kg, 2023년 56.4kg, 2024년 55.8kg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여수, 목포, 완도 등 전남 지역을 넘어 대전, 파주 등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입맛을 돋우며 눈길을 끌만한 다양한 쌀 요리를 선보였다.

인삼 떡갈비와 오미자 쌀푸딩, 홍미, 톳조림 떡밥, 쌀 또띠아 부자, 섬진강 배야, 크랜샬 치킨샌드, 배상화차 등 쌀이 주인공인 요리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서 곳곳에서 "쌀로 이런 음식도 가능하느냐"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대전 우송대학교 외식조리 전공 학생들로 팀을 꾸린 '밥그리고너'는 "쌀 또띠아 부자와 장 3종"을 선보였다. 바쁜 현대인들이 아침 식사로 쉽게 들고 나갈 수 있는 빵을 선택하는 현실에 주목해 쌀을 빵

처럼 들고다니며 섭취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요리다.

밥그리고너 팀장 구교현(여·20)씨는 "밀로 만든 또띠아에서 착안해 쌀을 딱처럼 치대 반죽한 뒤 또띠아처럼 구워 바삭하게 만들었다. 한 면은 바삭하고 다른 한 면은 쫄쫄한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라며 "된장감자무스로 포만감을 높인 된장쌀또각, 찹쌀의 간장향과 달달매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찹쌀또각, 목이버섯으로 식감을 살린 비빔쌀또각 총 3종으로 지루하지 않게 쌀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밥이 보약이다' 팀은 보릿고개 때 살기 위해 먹던 톳밥의 추억을 되살려 잡곡과 함께 지어낸 '톳조림 떡밥'을 만들었다. '쌀롱드미(米)' 팀은 자체 제작한 쌀 식빵과 쌀가루가 들어간 쌀 마요네즈 소스와 바삭한 치킨텐더를 한 데 모은 '크랜샬 치킨샌드'를 만들어 독특한 맛의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까지 챙긴 요리를 내놨다. '미(米)라클패밀리'는 배로 만든 생화탕에 호두 고명을 얹은 '배상화 흑진주' 등을 만들어 보였다.

대회 대상을 거머쥔 팀은 쌀떡에 담양한우, 인삼 등을 다져 떡갈비를 빚고 두 겹의 푸딩(오미자정젤리·쌀푸딩 배아)을 겹쳐서 만든 여수 '미(米)작연구소'였다.

미(米)작연구소 팀장 이선호(39)씨는 "쌀은 가장 흔한 식재료면서도, 다른 요리에 활용하는 게 제한적인 식재료기도 하다. 전남 지역에서 많이 소비



지난 29일 순천시 덕월동 순천제일대 성심관에서 '제3회 전국 쌀요리 경연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쌀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고 있다.

되는 한식 요리 떡갈비를 바탕으로 쌀을 섞어넣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요리를 만들었다"며 "또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저트 푸딩에 쌀 가루, 우유 등을 가미해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대회에 출품된 메뉴 레시피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게시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방침이다.

조자욱 전남도 농식품유통과 양곡유통팀장은 "전남이 쌀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소비 형태

변화에 발맞춰 쌀을 활용한 레시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 소비 촉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올 광주·전남 '역대급 더위'

7월부터 더위 '폭염 일수' 40일  
짧았던 장마도 더위 부추겨

올해 광주·전남의 더위는 지난 2018년 '극한 더위'에 견줄 만한 '역대급 더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올해 여름(6-8월) 3개월 동안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폭염 일수'는 40일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폭염 일수인 37일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기상 관측(1939년) 이래 '최악의 무더위'로 평가받았던 지난 2018년 여름(43일)과 1939년(43일), 1943년(42일)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폭염 일수가 많았다.

특히 올해는 7월에만 폭염 일수가 21일에 달했는데, 지난해 7월 폭염 일수가 5일밖에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일찍부터 무더위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월 폭염 일수는 1994년(24일), 1942년(21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으며, 2018

년(20일) 기록도 뛰어넘었다.

지난 3개월간 일 최고기온 평균은 31.5도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일 최고기온 평균 31.99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2018년 32.36도와는 불과 0.8도 차이를 보였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도 많았다. 올해 여름 기상청은 광주 기준으로 총 56일동안 폭염특보를 발효했는데, 이 중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은 45일이었다.

지난해 폭염특보 발효일 59일 중 폭염경보는 43일 동안 발효됐던 것에 비하면 2일 더 오래 더위가 이어진 것이다.

'최악의 무더위' 2018년에는 총 51일 특보가 내려졌으며 그 중 폭염경보 일수가 40일이었는데, 그보다 5일 더 긴 기간 동안 폭염특보 및 경보가 유지된 것이다.

기후 변화로 열대야 현상도 역대 가장 빠른 시기부터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지난 6월 20일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는데, 이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열대야였다.

올 여름 열대야는 31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총 31일 발생했으며, 이는 최근 10년(2015-2025년) 평균 열대야 일수인 21.2일을 웃도는 수치였다.

6-8월 열대야 수로만 따지면 지난해(31일)와 동률이며, 1994년(37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2018년(30일)보다 더 많은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 동안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됐고,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자리잡으면서 '열돔 현상'을 일으켜 뜨거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장마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았던 점도 무더위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장마는 6월 20일에 시작돼 12일만에 끝났으며, 이는 평년(31.4일)에 비해 19일 짧은 기간이었다. 장마 종료일(7월 24일)도 평년보다 23일이나 일찍 끝나 광주·전남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6일) 이래 두 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 기간 중 광주·전남 강수량은 4.6일에 불과했으며, 누적 강수량도 55.7mm로 많지 않았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SRT, 8일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SRT(수서고속철도)는 오는 8일부터 4일간 추석 명절 기간 승차권 예매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10월 2-12일) 운행되는 열차 승차권으로, 교통약자 우선예매는 9월 8-9일 오전 9시-오후 3시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해야 하며, 기존 등록 고객과 경로 고객은 별도 등록 없이 예매할 수 있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국민 대상 예매는 9월 10-11일 오전 7시-오후 1시에 운영된다.

8일과 10일은 경부·경전·동해선, 9일과 11일은 호남·전라선이 대상이다. 일반예매의 경우 9월 11일 오후 5시부터 9월

14일 새벽 0시까지, 교통약자 우선예매의 승차권은 9월 17일 새벽 0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예매기간에 팔리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9월 11일 오후 3시 이후 공식 홈페이지, SRT 앱, 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 가능하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로 선로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면서 KTX·I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일정을 2주 연기했다.

당초 9월 1-4일까지 예정됐던 일정이 15-18일로 변경되면서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15-16일,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예매는 17-18일로 조정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